

〈사설(社說)〉 ‘교육본부(教育本部)’ 발족 20년

2022년 3월 31일

학교 · 가정 · 지역을 잇는 힘

2020년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중학교의 도입(2011년도)을 거쳐 내일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시작된다.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새로운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실시될 예정이다.

신(新)지도요령에는 ‘육성되어야 할 자질 · 능력의 3개 기둥’이 내걸리고 있다.

‘①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

‘② 지식 및 기능’

‘③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이다.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은 ①의 자질이라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등으로 정의된다. ‘배우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는 의욕이며, ‘주위의 사람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의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①의 자질은 ②, ③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내걸린 것이다.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배움을 향한 힘과 인간성’을 기르는 주체자가 되는 것은 ‘학교’만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풍요로운 관계,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유대나 버팀목이 있어야만, 아이들은 안심하고 배우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다.

학회(學會)의 교육본부(教育本部)가 ‘학교교육’ ‘유아 · 가정교육’ ‘사회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3부(部) 체제로 협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본부가 미래본부

(未來本部)나 현장의 조직과 제휴해 개최하는 ‘가정교육 간담회’에서는 ‘교육본부’ ‘보호자’ ‘지역의 학회원’이라고 하는 3자(者)가 같은 시선에서 고민이나 과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육아의 지혜를 배우며 서로를 격려한다. 코로나 재난에도 지난해는 온라인으로 전국 1474곳에서 7800여명이 참여했다. 어느 곳에서도 맥박이 뛰는 것은 교육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있다는 창가교육(創價教育)의 신념일 뿐이다.

생각해보면 교육본부가 발족한 20년 전인 2002년 3월 31일도 아이들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기 전날이었다.

시대와 함께 ‘배움의 방향’은 바뀌더라도 ‘아이의 행복’이라는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학교·가정·지역’을 잇는 힘으로서 교육본부의 존재 의의는 한층 더 높아져 갈 것이다. 우리도 지금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되물으며 미래의 보배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다.